



3면

민주 탈당 전북인사들 "이제명대선 승리 앞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음 12월 3일) 제293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산림분야 신규 녹색일자리 제공

도, 올해 289억원 투자 취약계층 우선 선발키로

임인년 새해 1,700여 명의 신규 녹색 일자리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2022년 산림 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에 총사업비 289억 원을 확보. 공공 산림가꾸기 등 7개 분야 1,773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 일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에 양질의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42억 원을 투자해 공공 산림가꾸기 분야 163명을 고용한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0 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8명, 숲가꾸기 패트를 60명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산림서비스 도우미 분야도 고용할 예정이다. 유아숲지도사 28명, 녹색일자리 확충 18명, 도시녹지관리원 14명 등 96명을 모집해 산림문화시설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숲길 안내·수목 정비 등의 역할을 한다. 2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산림재

해 일자리 분야에는 가장 많은 1502명 을 모집한다. 산불감시원 760명, 산불 전문진화대 658명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 이밖에 산촌생태마을에 조성된 시설 물관리, 마을 홍보 등 산촌 마을 활성화 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7명(2억원), 도시숲·정원을 전문관 리인을 통해 가꾸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편의 증진하기 위한 도시숲 정 원관리원 5명(1억원)도 모집할 예정이 다. 산림 분야 일자리는 2022년 1월에 각 시·군별 누리집 공고를 통해 분야별 선발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 으로 하며,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할 계획이다. 황상국 도 산림복지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산림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며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소한(小寒) 하루 앞두고 쌓인 싸라기눈



24절기 중 소한(小寒)을 하루 앞둔 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쌓이기 시작한 눈이 잔뜩 쌓여 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일정 확정

8일까지 집행위 단체명단 수정
14일 회원 선출인명부 확정
적합도 등 여론조사 17~18일
내부 경선투표 19~20일 진행
단일후보 발표는 21일로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 절차 및 일정을 발표했다.

2022년 전북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경선일정이 확정됐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 절차 및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출위원회는 지난 3 일 4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규약 개정 및 후보 검증위원을 선임했다. 4~8일까지 집행위원회 단체명단 점검 및 수정, 추가 명단 취합 등이 이뤄진 다. 이후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회원 선출인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후보단일화를 위한 적합도

및 지지도 여론조사를 17~18일 이틀 간 실시하고, 19~20일 내부 경선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여론조사 방식은 기존 5:5에서 선출인단 70% 도 민 30%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21일 단일후보가 발표 된다. 특히 1만원 회비 대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도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회비 납부자에게는 회비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해 유료회원으로 남게 된다. 선출위원회는 경선일정과 관련해 먼저 도민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작년 11월 경선일정이 연기된 사실에 대해 다시한번 머리를 숙였다.

또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창근, 차상철, 천호성 후보도 교육 개혁을 위한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후 하나가 돼 반드시 민주진보교육감을 만들어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선출위원회는 교육개혁의 지속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부정부패는 거의 근절됐지만 만약 새로운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민연할 수 있고, 또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막아왔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키기는 출신들의 급격한 하락으로 그 존속 자체를 도전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동안 만들어왔던 전북교육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민주진보교육감을 다시한번 세워 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출범해 현재 2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0만 선출인단을 목표로 활동 중이며, 현재 9만8000여명이 모집됐다. /정은성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초도물량 최종 협의 중

'팍스로비드' 이달 중순 도입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달 중순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처음 들어오는 초도 물량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이달 중순에 국내에 들어오는 방향으로 최종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의약품 유통 전문 회사와 유통 계약을 완료했으며, 재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물량 공급과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초도 물량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라며 "국내 도입 일정, 적용 대상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기준 우리나라는 팍스로비드 36만2000명분, 미국 제약사 머크(MSD)의 먹는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60만4000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마쳤다. 여기에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 재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물량을 늘려 총 100만4000명분의 선구매를 추진 중이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새해



힘든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만큼
2022 임인년 새해에는
더 좋은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